

논문 10

청소년 진로선택 결정요인 -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

김성환*·전용석**

1. 문제제기 : “첫 단추가 중요하다!!”

청소년의 진로결정은 장래 노동시장의 효과적인 입직과 안정적인 직장정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첫 출발점이다. 적성과 노동시장 현황 등에 기반하지 않은 진로 결정은 적합한 직업과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므로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생애 전과정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¹⁾.

특히 향후 산업구조 및 기술의 급격한 변화, 기업간 국내외 경쟁 격화 등의 노동수요여건에 따라 경기여건에 상관없이 구조적·마찰적 실업의 위험이 증가하고 불완전 취업 상태에서 직업 및 직장을 이동하는 등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 및 경력 형성 및 축적은 더 어려워 질 것이고 당연히 청소년의 진로결정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유교적 전통이 강하고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가정환경 특히,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나 배경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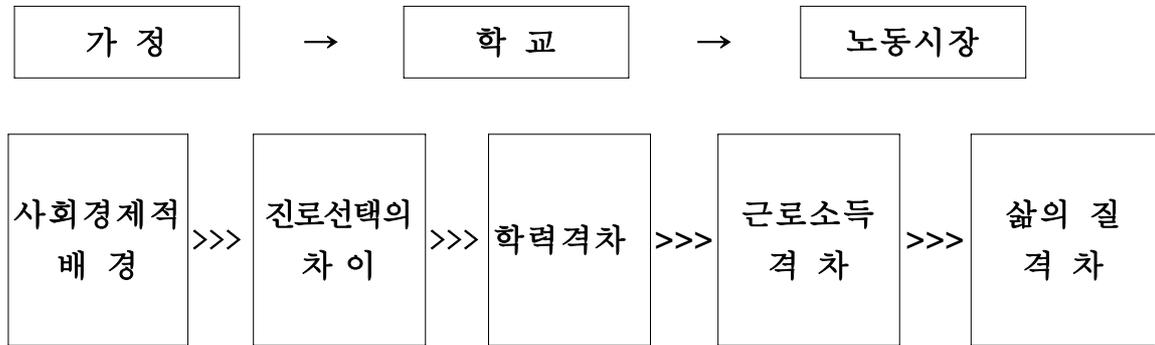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기반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 고용안정기관 등 진로 및 취업지원 기관에서 청소년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의 진로는 ‘자신의 선택’이 아닌 ‘가정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부모의 사회, 경제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중앙고용정보원

1) 청년층의 노동이동에 관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적성 불일치 등에 따라 첫 일자리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첫 일자리 선택시 부정적인 효과는 노동이동을 통해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된다(이병희 2002, 전용석 외 2003, 김성환 외, 2004). 한편, 실제로 2004년 말 현재 석사학위를 가진 취업자 10명 중 9명은 하향 취업했으며, 4년제 대졸 취업자 가운데 절반(49.5%)은 고졸 학력만으로도 충분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사 출신 역시 절반에 가까운 44.8%가 하향 취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주섭, 2005). 이러한 학력 과잉(over-education)은 당연히 국력의 낭비와 사회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해 대졸 출신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사회적 비용만도 20조원이 넘는다고 보고된다.

적 배경이나 가정환경 등은 자녀의 진로결정을 통해 경제활동에 그대로 세습되어 궁극적으로 소득과 부의 격차를 유지 및 확대 재생산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²⁾.



[그림 1] 가정배경 영향력의 파급경로

본 논문은 ‘과연 청소년의 진로결정이 청소년의 적성 및 소질에 기반하는 것일까 아니면 가정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일까?’ 라는 문제인식에 기반해 있다. 만약 후자의 측면이 강하다면, 고학력 부모, 고소득, 높은 재산수준이 보장된 이른바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대학진학을 선택하여 미래가 보장되는 직업을 획득할 것이며,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른바 ‘취업전선’에 뛰어 들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 및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가정환경 등 사회, 경제적 요인이 진로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³⁾

본 연구에 사용할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004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중학교 3학년,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각 2,000 명씩 총 6,000명과 이들 학생의 가구, 담임, 교무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 조사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교육고용패널」은 국·내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패널 조사의 장점을

2) 어느 사회나 특권적 위치를 점한 계층은 자신의 자녀세대가 자신들과 비슷한 계층위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회경제적 자원의 동원에 있어서의 계층간 불평등으로 인해 부모세대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계층의 강한 세습화를 낳는다(Parkin, 1971; 방하남·김기현, 2000).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고용패널 홈페이지 <http://keep.nhrd.net/jsp/html/aboutkeep.html> 참고

살려서 청년층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 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여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관계를 보다 밀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장점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의 특성상 진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중학생을 제외한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생 총 4,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학생의 가구소득, 가구자산, 사교육비 등에 대해 유효한 대답을 한 총 3,799명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은 생애경력의 초기 단계인 청소년시기에,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을 크게 대학진학과 취업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진로 선택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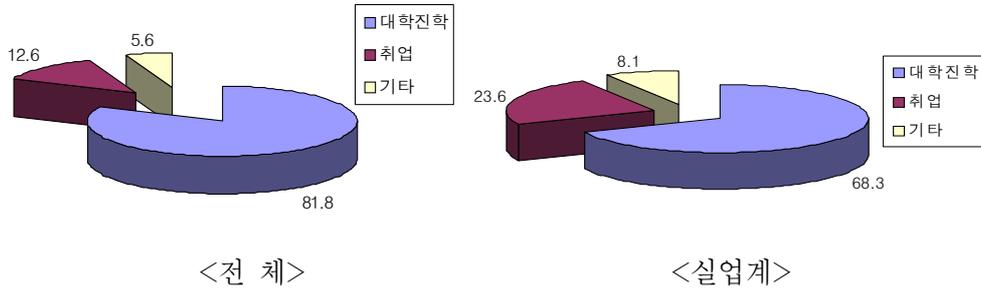
이를 위해, 우선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집단특성별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다변량 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통하여 대학진학을 선택하게 되는 결정요인과 취업(창업)을 선택하게 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문의 한계를 밝힌다.

3. 실증분석

1) 기초통계

우선 본 조사에 응답한 고등학생의 졸업후 진로에 대한 응답결과는 전체 응답자 4,000명(인문계 2,000명, 실업계 2,000명)중에서 3,273명(81.9%)이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 중에서도 1,366명(68.3%)이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4)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는 대체적으로 대학진학과 취업이라는 양분된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선택은 노동시장에서 학력차이로 인한 임금차이를 초래하게 된다. 현재, 고졸 근로자와 대졸이상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는 35%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이른바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수익 및 생산성 격차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생애임금으로 볼 경우 고졸학력자의 근로소득이 대졸이상 학력자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학력차이에 따른 근로소득 프리미엄이 크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학벌주의, 대학병, 입시지옥과 같은 사회문제가 초래되는 것이다.



[그림 2] 고등학생의 졸업 후 희망 진로

인적특성과 관련하여, 전체 대상의 55.3%가 남학생이며, 실업계 고등학생의 비중은 50.3%이다. 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가 39.5%, 광역권인 경우가 43.6%로 나타난다.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참여한 각종 프로그램 및 비공식 대화의 경험 여부와 관련하여, 진로관련 검사를 받은 경험은 전체의 77.3%, 진로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5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진로직업을 이수한 학생 비중이 41.1%, 진로관련 강연을 경험한 비중은 38.7%,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자는 48.9% 등이다. 반면, 직접 직업을 체험한 경험자는 전체의 11.3%에 불과했다.

한편, 적성이나 흥미와 관련한 대화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79.1%, 직업학교나 학과의 선택과 관련된 대화 경험자의 비중은 85.4%, 직업학교 및 학과에 대한 정보와 관련한 대화를 한 학생은 전체의 64.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일부 공식 프로그램을 제외할 경우 진로관련 교육 및 상담의 경험이 있는 학생 수는 적지 않은 편이다.

학생의 사회, 경제적 환경과 관련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월평균가구소득은 270만원, 가구의 월평균사교육비는 28.6만원으로 나타나며, 구간값으로 질문한 가구자산액에 대해서는 5천만원~7천5백만원정도라고 응답한 학생수가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부모중 한 명이 4년제 대학교 이상 학력대인 학생의 비중은 전체의 40.5%이며, 부모중 한 명이 관리직 및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16.6%로 조사되었다.

<표 1> 고교생의 대학진학 및 취업 계획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

변수	단위	평균	표준편차
고졸후 대학진학 선택 여부	예=1	0.8171	0.38667
고졸후 취업(창업) 선택 여부	예=1	0.1290	0.33522
성	남자=1	0.552777	0.497272
진로직업이수경험	있음=1	0.411424	0.492157
진로관련강연경험	있음=1	0.38747	0.487237
학교학과안내경험	있음=1	0.489866	0.499963
진로관련검사경험	있음=1	0.772835	0.419055
직업체험경험	있음=1	0.112924	0.316542
진로상담경험	있음=1	0.519874	0.499671
어떻게살지대화	있음=1	0.755462	0.42987
적성흥미대화	있음=1	0.791261	0.406461
직업학교학과선택대화	있음=1	0.853909	0.353244
직업학교학과정부대화	있음=1	0.642538	0.479316
알바횟수	회(5~5회이상)	1.020532	1.628666
실업계유무	있음=1	0.502764	0.500058
작년월평균가구소득	만원	270.2574	184.6116
자산금융총액	서열범주형	4.96736	2.367052
작년연간월사교육비	만원	28.58173	41.41099
부모관리·전문직여부	있음=1	0.166005	0.372134
부모고학력(대졸이상)여부	있음=1	0.405094	0.490985
편모여부	있음=1	0.094235	0.292194
재학 학교소재지(수도권여부)	있음=1	0.395368	0.488995
재학 학교소재지(광역권여부)	있음=1	0.436305	0.495998
표 본 수		3,799명	

다음으로 본 논문의 주요한 관심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가구재산, 사교육비 등의 수준에 따라 진로 선택이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대학진학을 희망한 학생의 가구소득(287.9만원)은 취업을 희망한 학생의 가구소득(172.8만원)의 166.6%에 이른다. 월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학생의 비중을 보면, 대학진학 희망 학생의 경우 44.0%인 반면 취업희망 학생의 경우 13.3%에 불과하다.

<표 2> 고교생의 졸업후 예상진로에 따른 가구소득 구성

(단위 : 명, 만원)

		100만	100~15	150~20	200~25	250~30	300~40	400~50	500~70	700~10	1000만	계	평균 소득
		원미만	0만원 미만	0만원 미만	00만원 미만								
대학 진학	미진학	131	151	126	111	57	64	30	16	6	3	695	191.7
	진학	212	289	371	511	354	694	308	247	74	44	3,104	287.9
취업	미취업	249	323	401	543	372	717	322	257	78	47	3,309	284.7
	취업	94	117	96	79	39	41	16	6	2	0	490	172.8
계		343	440	497	622	411	758	338	263	80	47	3,799	270.3

주 : $\chi^2 < 0.0001$

가구의 금융 등 각종 자산의 보유 정도를 보자. 가구 자산이 1억 이상인 학생의 비중을 보면, 취업희망 학생의 경우 15.7%이지만 대학진학 희망 학생의 경우 거의 절반(49.8%)을 차지한다. 더구나 가구자산이 5억 이상인 학생은 취업희망자중에서는 한 명도 없었으나 대학진학 희망 학생중에서는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고교생의 졸업후 예상진로에 따른 가구자산 구성

(단위 : 명)

		1천만원	1천만~2	2천5백~	5천만~1	1억~3	3억~5	5억~10	10억~20	20억원	계
		미만	천5백만 원미만	5천만원 미만	억원미 만	억원미 만	억원미 만	억원미 만	억원미 만	이상	
대학 진학	미진학	109	128	145	169	118	19	5	2	0	695
	진학	166	203	406	782	1087	269	143	41	7	3,104
취업	미취업	191	227	452	825	1134	282	148	43	7	3,309
	취업	84	104	99	126	71	6	0	0	0	490
계		275	331	551	951	1205	288	148	43	7	3,799

주 : $\chi^2 < 0.0001$

가구자산이나 가구소득이 학생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보여주는 '수입'과 관련된 지표라고 한다면, 사교육비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가구의 '지출'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는 가구지출의 구성을 달리할 경우 수입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도 증가할 것이다⁵⁾.

<표 4>에 따르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가구 월평균 사교육비는 32.5만원임에 비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동 비용은 9.2만원에 불과하다. 대학진학 희망자 가구 중 9.1%는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사용하는 반면 취업희망자 가구의 경우 단 1.2%만

5) 한 연구에 의하면, 전국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비교한 결과 서울 강남지역(49만7천원)과 경기 신도시지역(56만6천원)이 높은 수치를 보였고, 다음이 서울 전체평균 41만2천원, 비강남지역 32만8천원, 비신도시지역 27만3천원, 6대 광역시 24만원순으로 나타난 지역간 지출비 격차가 2-5배 수준에 달했다. 특히 월 100만원이상의 초고액 사교육비 지출지역은 서울 강남지역으로 나타나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물리적 환경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역량과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현진, 2005).

이 월 평균 사교육비가 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고교생의 졸업후 예상진로에 따른 사교육비 구성

(단위 : 명, 만원)

		없음	10만원 미만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70만원	70~100만원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만원 이상	계	평균 비용
대학	미진학	405	50	79	52	45	17	31	3	10	1	2	695	11.3
대학	진학	857	216	359	363	320	184	349	173	188	55	40	3,104	32.5
취업	미취업	960	233	382	378	337	191	364	174	192	56	42	3,309	31.5
	취업	302	33	56	37	28	10	16	2	6	0	0	490	9.2
계		1262	266	438	415	365	201	380	176	198	56	42	3,799	28.6

주 : $\chi^2 < 0.0001$

2) 계량분석 : 다변량 로짓분석

기초분석에서 우리는 가구소득, 가구자산, 사교육비 등의 차이에 따른 희망진로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소득, 자산, 사교육비를 제외한 기타 요인들이 진로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기초분석에서 나타난 결과가 가정환경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가정환경, 즉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진로선택의 차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추정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진학 희망 여부 혹은 취업 희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 로짓분석(multiple logistic analysis)을 실시한다⁶⁾.

설명변수로는 인적특성, 공식·비공식 진로교육, 가정환경, 근로경험 등이 포함된다. 인적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성을 포함하였으며, 공식·비공식 진로교육과 관련된 변수로는 각종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 및 대화여부를, 그리고 가정환경과 관련된 변수로는 앞서 기초분석에서 보았던 가구소득, 가구자산, 사교육비 이외에도 부모의 교육수준 및 직업, 편모여부 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그 외 적성인지여부, 미래직업결정여부, 아르바이트횟수, 지역 등의 변수들이 본 추정모형의 설명변수로 적용된다.

가정환경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변수들 이외에도 추정모형에서 진로교육과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한 이유는 현재 공식·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로관련 교육, 상담, 대화, 체험 등이 과연 진로 결정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봄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변인과 그 효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그 외, ‘적성인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진로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로선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중 하나가 될

6) 이상의 모형을 추정하기 위한 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ln(\pi_i/1-\pi_i) = \alpha + X_i\beta + u_i$$

(X_{ii} = 성, 실업계유무, 적성인지유무, 미래직업결정여부, 진로직업이수경험, 진로관련검사경험, 직업체험경험, 진로상담경험, 진로관련강연경험, 학교학과선택대화, 적성흥미대화, 아르바이트횟수, 작년월평균가구소득, 자산금융총액규모, 작년연간월가구사교육비, 부모모교학력여부, 부모전문직여부, 편모여부, 광역권여부, 수도권여부 등)

것이며, ‘아르바이트 횟수’는 경제활동의 경험과 함께 학생의 경제, 사회적인 환경을 반영하는 변수가 될 것이며, ‘광역권 및 수도권 여부’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적 특성이 진로선택의 차이를 초래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⁷⁾.

<표 5> 고교생의 대학진학 및 취업 계획 결정요인 분석

구분	독립변수	모형1		모형2	
		대학진학예정		취업(창업)예정	
		B	S.E.	B	S.E.
인적특성	성	0.3979***	0.1091	-0.9730***	0.1300
학교특성	실업계유무	-1.6620***	0.1460	2.2790***	0.2170
적성	적성인지여부	0.1180	0.1160	-0.0080	0.1350
직업	미래직업결정여부	0.3770***	0.1160	-0.2780**	0.1350
진로지도수 해경험	진로직업이수경험	-0.0590	0.1130	0.1070	0.1320
	진로관련검사경험	0.1170	0.1240	-0.2730*	0.1430
	직업체험경험	-0.4340***	0.1480	0.2670	0.1700
	진로상담경험	0.0380	0.1110	0.0130	0.1290
	진로관련강연경험	0.0850	0.1138	0.0270	0.1320
	학교학과선택대화	0.6420***	0.1410	-0.4940***	0.1640
	적성흥미대화	-0.1540	0.1340	0.2240	0.1560
근로경험	알바횟수	-0.0980***	0.0300	0.0730**	0.0340
가정환경	작년월평균가구소득	0.0000	0.0000	-0.0010**	0.0010
	자산금융총액	0.1860***	0.0330	-0.2190***	0.0390
	작년연간월사교육비	0.0080***	0.0030	-0.0100***	0.0040
	부모고학력여부	0.2630**	0.1220	-0.3590**	0.1480
	부모전문직여부	0.1100	0.1630	-0.2570	0.2050
	편모여부	-0.4740**	0.2120	0.2230	0.2320
재학학교 소재지	광역권여부	0.0570	0.1150	-0.0940	0.1360
	수도권여부	0.1840	0.1200	-0.1440	0.1430
Constant		0.6844707***	0.25302	-1.14127***	0.323934
관측수		3,799		3,799	
-2LogL		2,298.577		1,735.098	

주 : *** p < 0.01, **p < 0.05, * p < 0.1 유의수준을 의미함.

7) [교육고용패널]에는 아쉽게도 학생의 가구 소재지가 누락되어 있다.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주지하다시피 가구의 소재지, 즉 지역변수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에 직면하여 설문에서 포함된 학교의 주소를 대신 참고하였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남자일수록, 인문계 고등학생 일수록 상대적으로 대학진학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취업을 선택할 확률은 낮다⁸⁾. 자신의 적성을 인지하는 경우 대학진학을 선택할 확률이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미래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 볼수록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진로직업이수, 진로관련검사, 진로상담, 진로관련강연 등의 경험은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학교학과의 선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경험은 대학진학을 결정하는데 비교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취업선택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에 직업을 결정한 경우일수록 대학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았다.

진로지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진로검사를 받은 경우 취업선택의 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며, 직업체험경험은 대학진학 선택확률을 유의하게 낮추었다. 한편, 학교나 학과에 대한 선택과 관련된 대화는 대학진학 선택확률을 높이고 취업선택확률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경험과 관련하여서는 재학중 아르바이트 경험은 대학진학을 선택할 확률을 유의하게 낮추고 취업선택 확률을 유의하게 높였다.

본 연구의 관심사항인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을 선택할 확률은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자산총액은 높을수록 대학진학을 선택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반면 취업을 선택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다.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지출이 높을수록 대학진학을 선택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취업을 선택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다. 부모의 학력은 높을수록 대학진학을 선택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 취업을 선택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고, 부모가 전문직이거나 관리직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대학진학 선택확률을 높이고 취업 선택확률을 낮춘다⁹⁾. 가구형태와 관련해서는 한 부모(특히 여성가장)일 경우 대학진학을 선택할 확률을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이 외에 응답자의 학교가 수도권 및 광역권에 소재할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대학진학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낮다¹¹⁾.

8) 방하남·김기현(2000)은 성별 차이를 설명하면서, 여성의 경우 부친의 학력이 본인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게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부친의 직업이 본인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낮게 추정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세대간 사회적 신분세습이 더 강하며 출신가족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사회이동에 있어서 남자보다 한층 더 제약된 조건하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9) 이러한 결과들은 앞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지위가 자녀의 귀속지위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황덕순, 2000; 방하남·김기현, 2000·2002; 박인봉, 2002; 이규재, 2003 등)

10) 이규재(2003)에 의하면, 양부모 가정의 자녀가 한부모 가정의 자녀보다 높은 학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한부모가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일지라도 가사를 전담하는 부모가 없는 집단과 비교할 때, 가사를 전담하는 한부모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자녀의 학력획득에 큰 의미가 없다. 구인회·김순규(2002)도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가족구조의 부정적 영향은 이혼·별거 가족의 청소년과 가장기적으로 한부모가정을 경험한 청소년 집단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11) 이와 관련 박인봉(2002)은 고등학교 소재지와 직업선택기준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울·경기지역일수록 목적지향적인 직업선택기준을, 기타 지방은 수단지향적인 직업선택기준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인적특성 및 가정환경과 관련된 변수가 유의한 반면, 진로교육과 관련된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의 계열, 성, 학교학과의 선택과 관련된 대화여부, 자산금융총액 및 부모고학력 여부 등이 비교적 진로결정에서 유의하면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결론

본 논문은 생애경력의 준비단계인 청소년시기(고등학교)에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특히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가정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가구소득, 가구자산, 사교육비,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변수가 대학진학과 취업의 선택에서 비교적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다. 둘째, 성별로 대학진학과 취업의 선택에 차이가 존재한 반면, 자신의 적성에 대한 인지는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요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접근하는 진로관련 프로그램의 효과가 크지 않다.

결국, 가정환경과는 중립적이어야 할 청소년의 진로결정이 실제로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적성과 소질에 따른 진로선택을 지원할 공공프로그램은 진로결정과정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몇 가지 주요한 정책적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진로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예컨대, 본 자료에 따르면 적성검사를 받는 학생의 비율이 3/4이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적성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검사의 효과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따라서, 현실적합성 등을 고려한 내실있는 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단순한 검사 및 상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직업활동, 교육훈련경로, 취업서비스 등과 연계되는 중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박인봉, 2002; 이윤옥, 2004).

둘째, 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환경 격차를 고려하여 교육, 사회, 경제적 지원프로그램을 결합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정보접근이나 공통직업교육 등의 일반적이고 소극적인 대책은 효과가 크지 않다. 일반적 진로 프로그램에 덧붙여, 학생의 가정환경과 적성 및 소질에 대한 심층상담에 기반하고 진학비용지원 등의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 프로그램이 설계, 시행되어야 한다¹²⁾.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른 이러한 선택적 프로그램이 강화된다면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학생들이 가정환경 등의 어려움에 제약되지 않

12)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아동 빈곤과 빈곤대물림 문제가 빈부격차의 심화, 이혼율증가, 아동양육부담 증가와 맞물려 있다고 보고 가난한 아이들이 겪는 건강문제, 방과후 보호문제, 교육문제, 기본생활보장문제 등에 대한 입체적인 대응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2004.7.1).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청소년기의 진로결정은 교육적, 심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많이 지적된다. 그러나 만약 개인의 지적·정신적(흥미, 적성, 소질 등) 요인이 아닌 사회, 경제적 환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로 인해 개인의 경제, 사회적 지위상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통합이 저해된다면 교육적, 심리적 차원의 해소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득(재)분배와 같은 직접적인 대책이 기대되지만 이는 본 논문의 영역을 넘는 것이므로 고려에서 제외한다면, 비교적 공평한 사회·경제적 출발점에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위의 두 번째 대책은 이러한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자료자체의 한계를 일단 차치한다면¹³⁾ 우선 가정배경 이외의 요소들을 배제한 가운데 가정배경의 영향력과 역할을 실증하는데 그쳐 전체적인 진로결정 경로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전적인 인지능력 등의 개인적 특성, 학교 및 주변 생활환경 등의 가정외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더불어 가정내 요소로서 형제자매 수, 출생순서, 부모 연령 등에 대한 분석도 고려할 수 있다(구인회·김순규, 2002; 방하남·김기현, 2002 등).

1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능원의 [교육고용패널자료]는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청소년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 상황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많은 질문과 그 결과를 담고 있어, 청소년의 진로 선택과 관련하여 원인을 다양하게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자료가 패널조사의 첫 해의 결과이기 때문에 재학생의 현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른바 교육-‘고용’패널이 아니라 ‘교육’-고용패널의 특성을 가지는데, 이로 인해 진로선택의 사회, 경제적 성과 파악이 어려워 본 연구가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향후 본 조사가 진척되어 졸업생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파악될 경우 보다 발전된 연구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구인회·김순규,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02
- 김성환·최바울,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정 분석”, 『제3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중앙고용정보원, 2004
- 김주섭, “청년층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 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5권 제 2호, 2005
- 김한성·한준구·임지선·우정식, “청년계층별 취업, 실업, 이직으로의 이행과 직업선택기준의 가치차이에 관한 연구”,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중앙고용정보원, 2003
- 김현진, “사회계층변인(소득, 부모학력,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연구”, 중앙고용정보원, 2005
- 박인봉, “청년층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중앙고용정보원, 2002
- 방하남·김기현,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의 세대간 신분이동 및 성취구조”,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00
- 방하남·김기현,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 세대간 변화와 불평등의 추이”,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02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 빈곤아동·청소년 종합대책」, 제49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2004.7.1
- 이규재, “학력획득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에서 가정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과 역할”, 『제5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03
- 이병희,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이윤옥, “고등학생의 진로계획 및 진로지도 실태 분석”, 『제3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중앙고용정보원, 2004
- 전용석·김준영, “청년층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중앙고용정보원, 2003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 황덕순, “도시취업자의 세대간 계층이동과 세대내 유동성”, 『제2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00
- Parkin, F.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der*, London:MacGibbon Kee, 1971